

교회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 18:1)

주간충현

발행인 : 신 성 중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잠 3장9절)

'91년 추수감사절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91년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평안과 위로와 풍성한 은총이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무척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이 골고루 나누어져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됨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풍족한 은혜주심을 감사하오며, 성경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감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케 하다", "건강

하게 하다", "치료하다", "보존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뜻은 대단히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신 것, 자신의 구원에 대한

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법계를 통해 그의 임재를 표시하여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또 성경에는 많은 감사의 방법

바로 감사의 표시입니다.

감사의 바른 표시는 헌신인데, 이것이 바로 윤리요, 도덕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바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셋째는 이적을 일으킵니다. 사람이란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더 주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생기지만, 감사하면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생겨 집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바른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항상 감사하는 생활로 계속되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추수감사절에

구원받은 자의 감사

신성중 목사

윤리적 생활이란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구별된 생활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생활이요, 사랑의 생활이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많은

감사, 그리고 기록하신 자(하나님)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중에 계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으

이 있습니다. 먼저 입술로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또 찬양으로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사"라고 했고, 하나님은 이 찬미를 기뻐하십니다. 다음은 생활을 통한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이것은

본 교회 교역자 청빙

부목사 4명, 여전도사 3명, 교육전도사 6명

•부목사

교회는 지난 6일(수) 10월 정기당회를 개최하여 부목사 4명, 여전도사 3명, 교육전도사 6명 청빙을 허락했다.

새로오시는 교역자들은 고등부·대학부 전담지도를 비롯하여 교회학교 각부서 및 교구에서 사역케 된다.

초빙되어 오시는 교역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부목사

① 김희수 목사(36세)

총신대학 및 신대원 졸업, 고대 교육대학원

② 김태준 목사(36세)

총신대 신대원 졸업, 싱가포르 트리니티 신대원, 연세대 교육대학원 졸업, 계명대 대학원 박사과정 1년 수료

③ 조동원 목사(34세)

총신대학 및 신대원 졸업

④ 이병각 목사(33세)

고려대졸, 총신대 대학원 졸업

▲ 여전도사

① 손미희 전도사(35세)

칼빈신졸업, 총신대 평생교육원 수료

② 송향자 전도사(42세)

숙명여대교육학과 졸업, 서울 신학교 4년 재학 중

③ 계선화전도사(34세)

한국여자신학교 졸업



김희수 목사

김태준 목사

조동원 목사

이병각 목사

•여전도사



손미희 전도사

송향자 전도사

계선화 전도사

•교육전도사



김필수 전도사

이준우 전도사

장상기 전도사



정갑신 전도사

정창욱 강도사

윤삼중 전도사

① 김필수 전도사(30세)

총신대졸업, 총신대 신대원

1년 재학중

② 이준우 전도사(23세)

총신대졸업, 총신대 신대원

1년 재학중

교회학교 세례부 신설

교회는 세례부를 신설키로 했다.

세례부는 일반은 6개월 수강, 단기는 2개월 수강을 원칙으로 하고,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입교 대상)의 교육을 전담키로 했다. 세례부 시간은 매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육관 301호에서 교육키로 했다.

교구총회 열어 충성 봉사 다짐

교구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91년도 교구총회를 개최하여 92년도에 일할 교구장, 지도 교역자, 지역장, 교구일꾼 등을 임명했다.

예년보다 1개월 일찍 총회를

연 교구총회는 교회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내에 극복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교구일꾼을 임명하여 인수인계 및 새로운 지도교역자 배치를 완료시킨 것이다.

92년도 교구장·지도교역자 배정

교구	교구장	지도목사	전도사	간사
1	이종석	송태근	정복인	장신순 서해결
2	김원선	정기봉	배옥인	황용조 이상옥
3	조인제	김해균	임태주	한천길 김양자
4	최상규	김창수	장혜순	김정태 서금자
5	김광남	신표근	황정순	김장영 박기원
6	박용삼	김성윤	정연희	김수연 박금식
7	이훈	김광국	김정자	신부근 정창길
8	김천재	홍창민	장영자	이승우 이성강
9	박영식	김학진	송향자	이태식 김한원
10	이병학	김용기	최지혜	정영래 김순오
11	김은호	장경철	김정순	이평희 이인숙
12	김경철	윤용규	최명자	박일태 조은신
13	정광호	안경소	현정남	전용해 박천래
14	최대원	최인근	손미희	김점석 전순순
15	박관영	김양홍	최순복	박원화 노순옥
16	윤성철	김찬곤	계선화	정창원 임광신
17	박치민	이홍성		정래명 강영자
국제	송환창	심길웅		

충현 강단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엡 1:7~12)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첫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다른 데서 받으려 해서 안됩니다. 부처 앞에 가서도 복을 못받고 산신령에게 빌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받습니다. 하나님의 두번째 사역은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인격을 봐도 신앙을 봐도 지식을 봐도 흠부성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6)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표시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케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택해주시는 것입니다.

1.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엡 1:7)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해주시는데 구속, 즉 죄사함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속해주시는 분입니다.

구속이란 "아포루트로시스"라고 하는데 이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어야 했고 노예를 산 후에야 비로소 그 주인이 해방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구속,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을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서서 종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더하게 해주고, 분리되어 있는 나와 이웃을 더해줍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친척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웃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십자가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한편되게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암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의 은혜가 너무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주셨고 구원해주셨고 은혜의 반열에 참여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기독교 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도 알라라고 부르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유대교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돈이 넘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넘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나 총명대신 집과 돈을 넘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집이나 돈과 같은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 가운데서 급수가 가장 낮은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까. 돈을 받아봐야 쓰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돈 버는 방법을 알면 돈은 자꾸 생겨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지식이 많은가요? 아닙니다.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갈수록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의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시면서 지혜뿐 아니라 부기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지혜를 가지면 부기는 그냥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얻으면 부기와 영광과 존귀를 얻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총명이란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지혜와 총명을 얻으면 다른 것들은 덩으로 따라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엡 1:9)

비밀을 안다는 것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입이란 어떤 사실을 모르면 웬만큼 알면 가만 있지 못합니다. 꼭 얘기를 해야 시원해 합니다. 그런데 말이란 눈덩이처럼 불고 불어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밀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뜻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비밀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해서 안되는 세상 비밀은 알리고, 정작 알려야 하는 하늘 나라의 비밀은 알려지 않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직장에서 기독교인인데 아닌지 모를

정도로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선교회를 통하여 알아보았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적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혹시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약아보이지만 직장에서 예수생이란 말 듣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목적은 특별한 데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0)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은 통일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통일은 원문에 보면 "재통일(하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분열되었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3. 결 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엡 1:11)

"기업(크레로스)"이란 "몹을 책정한다, 분깃을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첫째 구속, 즉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고민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 속에 있는 죄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모두 용서해주셨습니다.

그 둘째는 우리들을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은혜뿐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의 신비한 모든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신비한 비밀 중 가장 큰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성종 목사

성도들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

부려먹은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며 하나님께 대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탄의 종이며 사탄과 한패였던 죄의 종으로 사탄이나 죄로부터 부림을 당했는데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찬미하는 일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관적 근거인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가져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는 객관적 근거인 십자가, 즉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엡 1:7) 그리스도의 보혈, 즉 십자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입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해결이 안됩니다. 알라신을 믿어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2. "넘치게 하사"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엡 1:8)

요즘 이 세상은 부족함이 많은 세상입니다. 기쁨, 집 등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그가 우리에게 넘치게

본 교회 교역자 금식기도

11일부터 3일간 충현기도원서

본 교회 교역자 전원은 오는 11월 11일부터 3일간 충현기도원에서 금식기도회를 갖는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 영적 성숙을 위해 개최되는 교역자 금식기도회에 온 성도가 함께 기도도 뒷받침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는 성경연구원 강의는 휴강한다.



▲ 소련하바롭스크 합창단 공연 모습

찬양예배시 소련의 하바롭스크 음악대학 합창단 26명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연주곡목은 "죄짐받은 우리 구주"를 비롯하여 5곡이 아름다운 음률로 연주되었는데 북음송 살아계신 주를 한국어로 찬양해 큰 감명을 받기도 했다.

동 합창단은 한국순회공연 중 본 교회에 잠시 들르게 된 것이다.

새가정부 특강

새가정부(부장 최상규 장로, 지도 최인근 목사)는 "건강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11월 17일과 24일 오전 11시 교육관 201호에서 가정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학부 집회일 주일로 환원

1992년 1월5일부터 실시

교회는 교회학교 대학부 정기 집회를 토요일에서 주일로 환원 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토요일 오후 집회를 가졌던 대학부는 참석 대학생들의 부담감을 일소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 주일 오후 2시가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회장이 이를 승인하고 1992년 1월 5일 주일부터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주일 집회 장소는 선교관 지하 2층 메추라기홀로 확정되었다.

1시 교육관 507호에서 특강을 갖는다.

"크리스찬의 패션, 그 감각과 철학"이라는 주제로 이영숙 교수(서울여대)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이 특강에 많은 성도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인사위원회 조직 승인

당회는 인사위원회 조직을 승인하고 인사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 위원장: 당회장

▲ 위 원: 당회서기, 김영개, 김차생, 손동운, 정하우, 하대선 장로(이상 7명)

청년2부 특강

청년2부(부장 강은원 장로, 지도 김정우 목사)는 오늘 오후

충현 프리즘



◎...당회는 경건에 관한 서적 및 신앙도서를 성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일에 충현도서관(관장 김원선 장로)을 개관하기로 했다. 많은 이용을 바란다.

◎...충현기도원 식대가 1992년 1월 1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다.

◎...교회는 생일을 맞이한 성도에게 담당 교구 교역자가 당일 전화로 생일을 축하하기로 했다.

다. 축하 방법은 생일 축하 특별 기도이다.

◎...플라우주제 김의경 선교사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교사직을 사임케 되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목회자 세미나 참가 교역자를 위하여 만찬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만찬은 11월 11일 오후 5시 만나홀에서 있으며, 약 1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구위원회는 그동안 중지되었던 교구일꾼에 대한 년말 위로 선물을 부활시켜 그동안 수고를 치하하고 위로와 격려를 함께 하는 뜻에서 작으마한 선물을 증정기로 했다.

◎...제2회 충현성극경연대회가 지난 주간에 막을 내렸다. 기독교 문화에 보탬이 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복음주의적 신앙관을 정립함은 물론 선교의 수단이요, 도구로 사용될 무대에의 향연이었다. 지난 해보다 연출력, 연기력과 특히 의상, 미술이 향상된 무대로써 제작진의 열의가 돋보였으며 준비위원회의 기획·진행을 위한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대신충현교회 설립예배

11월 15일 오후 2시

전도위원회가 청원한 지교회 대신충현교회 설립 예배를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동 교회당에서 갖기로 했다.

소련 하바롭스크합창단 본교회서 찬양공연

지난 주일(11월 3일) 저녁

중등부 시와 찬양의 밤

중등부는 함께 뜻을 모아 오는 11월 16일(토) 오후 3시 교육관 1층과 나사렛홀에서 제19회 "시와 찬양의 밤"을 개최한다.

중등1부(지도 홍창민 목사)와 중등2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안경소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등3부(부장 송기홍 장로, 지도 김광국 목사)가 협찬하는 이 행사는 오후 3시부터는 소석관 1층 복도에서 시화전, 사진전, 엽서전으로 진행되고

이어서 오후 4시부터는 나사렛홀에서 시낭송, 핸드벨 연주, 풍트, 찬양, 악기 연주 등의 내용으로 학생들의 달란트를 발표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시와 찬양으로 영광돌리는 이 행사에 중등부 학생들은 물론 여러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장로칼럼

사랑의 채찍

하대선 장로(초등4부 부장)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우리 충현교회가 겪은 시험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아비도 사랑하는 자식의 타락을 막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에 드는 눈물의 채찍이 가슴아픈데,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시던 충현교회를 되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수 사랑의 채찍을 드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38년 세월을 한결같이 키워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새 성전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행사에 더 열중하였으며, 사람의 이름을 들어내기 위한 형상만들기에 더 골몰하지 않았던지...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고 깨우쳐주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선 줄로 착각하지 않았었는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오직 자신만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인 줄 압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 4)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삼아 주신 우리를 사랑의 채찍으로 치신 것은 분명 거룩한 뜻이 계시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 스스로의 회개운동과 남을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어느 인간의 명작이나 명감독의 연출로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엮어내신 사건의 전개와 수습, 그리고 지체없이 보내주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 모습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신 주님의 섭리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이로써 충현교회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시고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잘못을 두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도 항상 힘쓰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충현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몸소 체험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끼고 더욱 사랑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 발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건물이나 시설, 그리고 작은 비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아끼고 잘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

다음차례 : 차신득 장로

청년1부 “빛의 대가” 영예의 대상

성극경연대회 은혜 중에 마쳐

감사의 계절 11월, 무대에 오른 교회학교 9개 부서 10개 팀의 열띤 경쟁을 불리웠던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행사인 충현성극경연대회(준비위원장 박승준 장로)가 열린 2일간의 막을 내렸다.

심사 결과 청년1부 “빛의 대가”(기획 이기성, 연출 이대길)가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여자조연상 등 3개 부문을 휩쓸어 영예의 그랑프리를 차지하였으며 중등1부 “죽으면 죽으리라”(원작 안이숙, 연출 송영현, 기획 김영길)도 3개 부문을 받았으나 득점면에 뒤져 밀려났다. 아동부에서 유치부 “실로암”(연출·기획 김은희, 김순희)이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이번이 제2회의 짧은 연륜임에도 1회에 비해서 작품작이 2편이 늘었으며 전반적인 연극 수준 면에서도 진일보한 작품들이 선보여 감동의 배아리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수준작들이 발표하기에는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교사들의 의욕넘친 헌신과 봉사가 밑바탕이 되어 출연자들을 독려하고 원작이 지닌 주제를 충분히 표현하기에 이르렀으며 다음 제3회대회를 기대해 본다.

시상식은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 실시한다.

·심사 발표·

〈아동 부문〉
최우수상: 유치부

우수상: 초등3부
장려상: 영아부, 초등5부, 초등6부

〈학생 및 성인 부문〉

◇ 단제상
최우수작품상: 청년1부 “빛의 대가”

우수작품상: 중등1부 “죽으면 죽으리라”

장려상: 중등2부B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대 아닙니다”

◇ 개인상

남자주연상: 조영호(대학부 “사람의 아들”의 민요섭 역)

여자주연상: 최아영(중등1부 “죽으면 죽으리라”의 안이숙 역)

남자조연상: 한준혁(중등1부 “죽으면 죽으리라”의 형사반



▲ 영예의 대상을 받은 청년1부 “빛의 대가”의 한장면



▲ 연출상 받은 이대길 집사

장 역)
여자조연상: 박광영(청년1부 “빛의 대가”에서 요압의 어머니 역)
연출상: 이대길(청년1부 “빛의 대가”)



▲ 성극대회에 앞서 1부예배 드리는 모습.

따뜻하게 내려쬐던 태양도 아침, 저녁으로 싸늘하게 우리의 목덜미에 와닿기 시작할 때 충현에 가을이 있음을 느낀다. 색깔없이 찾아온 가을의 한 순간에 서서 믿음의 주시요,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이를 바라보며, 여러 색깔들의 마음을 모아 하얀 마음으로 바치는 이들이 있었다.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제2회 성극경연대회—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같은 신성종 담임목사님의 메시지는, 벌써부터 대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사랑과 격려로 감싸시고, 이러한 기독교 문화의 진정한 정착이 율수를 거듭할수록 값진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 몇 달 동안 맘을 졸인 스태프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영아부의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와 그의 개 로리가 귀하게 얻은 빵을 가난한 병자에게 주고 나사로는 결국 먹지 못해 쓰러져 하늘 나라에 가는 이야기이다. 이제 몸짓과 언어로 자기의 의사를 겨우 표현하는 어린이들이 조금

어린이 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치부의 “실로암”은 어린이들에게 놀림받는 소경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실로암 못에서 나음을 입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노래극으로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호흡을 맞춘 것 같다. 소경을 놀려대는 어린이들의 연기가 진지했으며, 소경의 우물쭈문 심리 묘사도 극의 흐름 속에 잘 나타나 있었다. 실제로 노래와 연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진하게 나타났다.

우수상을 수상한 초등3부의

때, 풍습으로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선교사의 믿음과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내용이다. 선교사의 대서 처리는 좋았으나 요소요소에서 깊게 처리해야 할 감동의 부분이 조금 약하였다. 무대 배경의 세심함이 돋보였고, 풍습을 처리한 분장은 남자 토인들의 옷을 벗겨서 토인 복장으로 하는 과감한 시도는 어떠할지 궁금하다.

초등6부의 “악마의 축제”는 바알세불을 중심으로 한 네 귀신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인 장로, 권사, 집사에게 시련과 시험을

갖추어졌으면 좋았다. 감옥을 구성한 무대나 죄수복의 의상은 연출의 디테일함이 나타나 있었다.

중등2부의 “천국 열쇠”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인간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극이다. 등장 인물의 입장이나 인물 묘사로 주의를 끌었으나 장면 전환 부분이 극의 흐름을 끊는 느낌이다. 짧은 시간에 극 전체를 소화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대본의 선택이 곧 극의 생명이라는 생각이

대한 내면 세계의 진실적인 연극적 표현이 좋았으며 고양된 감동 처리가 깔끔하였다. 본 작품을 극화할 때, 연출자의 공연에 대한 열정 이전에 적지 않은 위험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연시간의 제한과 이러한 주제와 내용에 대해 기존의 연극들을 뛰어넘을 만한 방법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켜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공연 이전에 고려되어야 할 전체 조건이기 때문이다. 남자 주연상의 민요섭 역에 박수를 보낸다.

성인부 최우수상의 청년1부 “빛의 대가”는 장님이었던 요압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다.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였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가운데 가족과 이웃에게 버림 받음에도, 빛을 보게 해주신 주님을 부인치 않고 복음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전 스태프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노력들이 관객들에게는 감동으로 나타났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현장을 체험케 하였다. 주로 무대를 가로 지르는 동작선과 여자 조연상의 요압의 어머니와 그의 출연자들이 고른 연기력을 발휘하여 완성도 높은 연극을 이끌었다. 연출상을 수상한 이대길 집사의 노력이, 빈 무대의 확한 감동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입혔다.

아직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 충현의 성도들이 성극의 몸짓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 되어서 격년마다 열릴 성극경연대회가 온 성도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더욱 더 큰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드린다.

·성극을 보고 나서·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했던 성극 축제

이무열 집사(심사위원·3교구·중등3부 교사)



“뮤직머신”은 사랑 나라에 온 두 어린이가 사랑 나라 지휘자를 만나서 뮤직머신이란 기계를 통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주나 실족치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기자들 속에서 시련을 이기는 믿음의 잔잔함이 보였으며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의 모습과 같았다. 아쉬운 것은 좀더 적극적인 장면 처리와 대사의 감정 전달 부분이었다.

학생 부문의 우수상을 탄 중등1부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며 신앙을 사수했던 안이숙 권사님의 항거를 어린 나이답지 않게 은혜롭게 이끌었다. 한 개인의 승리라기보다 삶 자체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현대인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극이었다. 남자 조연상을 수상한 일본 형사 역의 연기는 돋보였으나 대사의 빠르기 조절이 미흡했고, 여자 주연상의 안이숙 역은 더욱 강한 액션이

든다.

중등2부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대 아닙니다”는 꿈을 통해서 천사와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는 토막극이다. 성경의 그릇된 해석로 빚어지는 현대인들의 탈선에 도전하는 내용이었으며 바른 믿음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었다. 남자 주인공의 세련된 연기와 극의 장면 전환, 자동차 소품 구성, 적절한 음향 효과는 연극의 형식을 잘 갖추게 했다.

대학부의 “사람의 아들”은 젊은이들의 신학적 갈등과 절대 권위 앞에 도전하는 몸부림으로 그 결과 하나님 앞으로의 회개로 끝을 맺지만, 그 권력에 대한 응징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성극단 못지 않은 연기와 두 사람의 교류하는 감정의 논리를 잘 부각시킨 수작이었다. 생애



▲ 아동부에서 최우수상 받은 유치부 “실로암”장면 아동부에서

은 약하지만 대사와 연기를 하는 모습은 신기하였다. 연극의 무대 배경의 조화와 강아지를 의인화한 의상은 극의 재미를 더하였다. 병자에게 사랑을 나누는 부분의 리얼리티를 강하게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노래로 소개를 받는다. 사랑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감동적으로 처리한 기술과 극의 색다른 표현의도는 좋았던 것 같다.

초등5부의 “아프리카의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마을 축제